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제770호



2월 20일(수) 온주 의사당에서 한인 단독 음력설맞이 잔치가 성대히 열렸다. 13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민속 공연과 한식을 즐겼으며 더그 포드수상도 방문해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2019년 2월 20일 의사당 247호실 〈실협뉴스 3면 기사 참조〉



www.okba.net Publisher: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 2019 네슬레 아이스크림 신제품 〉



GOODNORTH Ice Cream 475ml

New Flavours

Expanded portfolio with top selling flavours

- Flavours: Birthday Cake 8x475ml
 - Chocolate Chip Cookie Dough 8x475ml
 - Chocolate Peanut Butter 8x475ml (12366070)

• GOODNORTH

아이스크림은 단백질이 듬뿍 함 유된 고급 저칼로리의 최고급 아 이스크림 (400칼로리 이하)으로 서 3가지 맛으로 소개되어 젊은 층을 공략하는 제품입니다.



Grow with novelties in this on trend segment

- Flavours: Creamy Caramel 12(3x80ml)
 - Birthday Cake 12(3x80ml)
 - Cookies & Cream 12(3x80ml)







Sour Patch Tubs 1.5L

New Flavours

Expanded portfolio with top selling flavours

■ Flavours: Sour Patch Tub 4(1.5L)

어린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두개의 인 기있는 젤리제품이 아이스크림 스넥으로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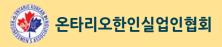


Maynard Fuzzy Peach & Swedish Berry SS (65ml)

New Flavours

Expanded portfolio with top selling flavours

■ Flavours: Fuzzy Peach Ice Pops 24(80ml) Swedish Berries Ice Pops 24(80ml)



■ OKBA 회 장: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송명현 (Myeong-Hyeon Song)

■ OKBA 전무: 전승원 (Sunny Chon) sunnyc@okba.net

■ 사업개발팀: 이주녕 (Brian Lee) briani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협회: Tel (416) 789 - 7891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이사장 이두승/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감사 3인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홍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동북부 지구 협의회〉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ia 회장 진재원(705)487-2005 Kingston 회장 이강정(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705)652-6323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포드 수상 참석, 축하 메시지 전해 퀸즈파크 단독 **한인설맞이 잔치** 열려

음력설을 기리는 온주 정부 여당 주 관 '한인음력설맞이 축하 행사'(Korean New Year Celebration)가 지난 2월 20 일(수) 퀸즈파크 의사당 파티 장소이자 여당 의원총회실인 247호 코커스 룸에 서 성대히 열렸다. 늘 중국계 의원들의 주도로 열리던 구정 행사에 한국도 같은 문화권으로 편승해 참가하다가 올해 처 음으로 코리아 단독 행사를 가지게 됐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온주 내 각에 노인복지부 장관으로 조성준 의원 이 활약하고 있고 재무 관련 상임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조성훈 의원도 있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이 그 만큼 높아진 덕분에 단독 행사가 가능해 진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가까 이 진행된 파티장은 더그 포드 온주 수상 을 비롯해 조 장관을 포함한 4명의 장관, 조성훈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보수당 의 원이 참가해 행사의 위세가 당당했다.

협회와 조합은 회장, 이사장, 운영이사 장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했다. 축하 합 창단과 연주자 등 전체 참석자는 130여 명이었다. 식사는 한식 부페로 준비됐으 며 한국 전통 악기 연주로 흥을 돋웠다. 조 장관은 동료 장관을 소개했으며 장



관들도 한마디씩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 중간에 당도한 포드 수상은 큰 환 호를 받으며 열렬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수상은 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참석한 한인 주요 인사들과 일일이 개별 사진 촬 영에 응했다.

수상은 축하 연설 후 주류언론과 한인 TV방송 얼티브이 인터뷰를 통해 불법담 배,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등 편의점 업 계 관심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사진)

편의점 채널의 주류판매에 대해서는 최 대한 관심을 쏟겠다는 말에 협회 참석자 들은 크게 고무됐다.■

CONTENTS

04 - 07 / 연방, 전자담배 광고 제재 강화 OKBA 종합지침서 정정사항

08 / 2019 장학금 수여식 편의점 현안 놓고 정·재계 간담회

09 / OKBA 복건매출 약 8% 증가

10 / DropMart 제휴로 추가 수익 창출 기대

11 / 英, 편의점 ATM 습격 기승

12 - 13 / 美, **편의점 수 감소 추세**

14 - 15 / 저 칼로리 아이스크림 소비 열풍

16 / **독자 투고 : 하늘 달리기**

17 / 2019년 CONVENIENCE U

18 / DIRECTORY

청소년 베이핑 폭증 우려때문

연방, 전자담배 광고 제재 강화



□ | 성년자의 전자담배 접촉을 극력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 방 보건부가 전자담배 광고에 강력한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초의 연방 정부 발표를 보면 미성년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광고는 금지시킬 것이라 한다. 예를 들면 건물 입간판 광고, 대중교통, 쇼핑 몰 등에서의 광고 행위가 일차적 금지 대상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광고에 대대적 제약을 가하는 연유는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경험이 일반 담배 소비로 이어지는 관문(gateway) 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일반 소매업소도 광고 금지 가능성이 농후하다 는점이다. 소매업소는 미성년자 출입이 매우 잦은 곳이라 전자담배 광고 노출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사이트, 각종 인쇄물(잡 지, 신문 등),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들 채널들 도 미성년자들이 빈번하게 들락거리거나 접촉하는 인기 소통 미디어물 이다. TV와 라디오 등 전파매체 역시 미성년자에게 프로 그램 전후에 깔 리는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가 노출될 수 있어서 금지 목록에 올라 있다. 제재 범위에 대해 물론 단서는 달고 있다. 즉,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나청소년대상의온라인쇼핑사이트등주타겟을청소년으로삼고있는 미디어나 매체 혹은 드라마 프로 등에 국하하겠다 한다.

연방이 갑자기 통제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수개 월간 미성년자 베이핑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미국 베이핑 시장을 휩쓸 다시피 하고 있는 쥬율 (Juul)과 같은 회사들의 신제품들이 쏟아지자 일 어난 현상인데 신제품의 대부분이 기존 전자담배 제품들에 비해 니코틴 함유량이 훨씬 높다.

작년에 통과된 새 연방법은 베이핑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이핑을 경험하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 세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 해보면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 소년 4명 중 1명 꼴로 전자담배를 경험 하고 있다. 연방 보건부 지넷 프티파 테일러(Ginette Petitpas Taylor) 장관 은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청소년 베이핑 증가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교사, 경찰을 비롯한 수 많은 국민들로부터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청소년 베이핑 문제 해결을 위한 절치부심의 모 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외중에 오타와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최근에 화장 실출입문을 제거해버렸다. 몰래 숨어들어 베이핑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는 고육지책이었다.



명망있는 의학 저널의 하나인 'JAMA Network Open' 2월호에 발표한 보 고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경험한 미성년자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 해 일반 담배 흡연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한다. 그 런가 하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흡연을 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 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상반된 장 단점을 아우르는 전자담배의 특 성을 감안했음인지 캐나다 연방정부는 광고 금지 정책에서 전문 베이퍼 숍에 한해서는 광고 판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전망이다. 단, 미 성년자가 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 따른다.

1월 말에 발표된 또다른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담배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는 성 인 흡연자의 18%가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니코틴 껌을 비 롯한 보조품 이용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 10%에 비하면 두배 가까 이 높은 수치다

이번 연방정부의 통제 강화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작년 10월 17일 베이 핑 제품 광고 판촉을 일정 조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Bill 36을 발효 시킨지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 이다. 왜 나하면 위에서 살펴본 방향으로 연방법이 개정되면 온주에서 시행 중인 광고 허용관련 법 조항은 상호 충돌을 일으켜 폐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 해지기 때문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온주내 전자담배 취급 소매업소에게 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베이핑 제품 광고를 주정부 차원에서 허용한 경우는 온타리오 주가 최

초였다. 물론 현행 연방법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였다. 이미 실협뉴스 763호 (2018년 11월 7일 발행)에서 Bill 36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으 나 전자담배 관련한 부분만 재차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ill 36개요〉

마리화나와 관련한 복수의 기존 법률 개정과 1개의 새로운 법률 제정 그리고 베이프 제품과 관련해 온타 리오담배관리법(Smoke-Free Ontaro Act)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담고 있고 총 4개의 분야 (schedules) 로 구분 된다.

Schedule 1 대마관리법(Cannabis Act) 및 관련 법률 개정

Schedule 2 대마취급허가에 관한 법률(Cannabis Licence Act) 제정 + 일부 관련 법률 개정

Schedule 3 대마소매업관리공사법(Ontario Cannabis Retail Corporation Act) 개정

Schedule 4 SFOA개정 +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개정

스케쥴 1, 2, 3은 마리화나 관련이며 본 주제인 전자담배 관련한 것은 스 케쥴 4에 해당된다. 그리고 Bill 36의 '스케쥴4' 부분만 따로 떼어 편의점 업계에서는 Bill 36을 'Ontario Vaping Regulations'라고도 부르는데 부분 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도 아니다. Bill 36의 스케쥴 4에서 규정한 온주담 배법 SFOA 개정안은 결국 시행령(439/18)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시행령



Toll Free. 1(888) 554-7355 Korean(ext 4) Direct Line. (905)560-4511 (416)900-7533 Fax. 1(888)554-0409 info@1solutions.ca

은 종전의 시행령인 268/18을 개정한 것이다. 이 내용 중 전자담배를 취 급하는 편의점 채널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바로 제품 광고 판 촉허용인 것이다.

● 판촉 허용





▲ 온타리오주는 전자담배, 베이핑 제품 광고를 사진에서 보듯이 할 수 있다. 다만 연방법이 금하는 방식의 광고 판촉은 허용되지 않으며 업소내 전시 또한 금하고 있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퍼를 취급해야 하지만 일정 한도내에서 판 촉활동(promoting)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담배 취급과 결정적으로 다 른 부분이다. 담배는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판촉을 금하고 있지만 베이 퍼는 판촉의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 제정된 연방법인 '담배와 베이핑 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PART IV DIVISION 2 'Vaping Products'에서 금지하는 사항 들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만 판촉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현행법을 광고와 관련해 개정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전의 현 규정 이 베어퍼에 대해 금지하는 판촉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의 광고 판촉
- -라이프스타일을 빙자한 광고 판촉
- 제조사 지원하에 제품 브랜드 또는 제조사를 연상시키는 방식의 홍 보 행위
- 판촉물을 동원해 직, 간접적으로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행위
- 반영구적 시설물이나 조형물에 제품의 구성 요소 또는 제조사명을 인 식케하는 문구나 도안이 표현되는 경우
- 베이퍼 제품 및 제품의 부분적 구성물(brand element)을 무료 제공하 는 행위 (이는 소매업주뿐 아니라 제조사나 공급사도 금지)
- 해당 베이퍼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타 상품 또는 금전을 보너스로 제 공하겠다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 면 베이퍼 제품을 보너스로 제공하겠 다는 방식의 판촉행위
- 업소 외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판촉행위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전달 의무를 어기 고 제품을 판촉하는 행위
- 여하한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는 판촉행위
- 위법한 방식으로 POS를 이용한 판촉행위

따라서 위의 경우만 피한다면 여하한 방법으로 제품 광고나 판촉 행위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 법이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되 면 광고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니 온타리오주의 전자담배 취급 업소들에 게는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대상인 경우에 한해 광고 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민간단체나 보건단체들에서는 미흡하다고 질타한다. 전국 암협회 (CCS) 수석 정책분 석가 롭 커닝햄씨는 "이정도 변화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이 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만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 다. TV의 많은 프로들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 자 대상인데 이 경우의 광고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지적이다.

시장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보건부는 2월 5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강조했다. 청소년 취향을 자극하는 형태의 제품 들 예를 들어 향 첨가, 니코틴 농축, 유혹적인 디자인 제품들이 집중 단 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아이들이 무슨 주말 만화프로만 시청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TV프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는 것이다.

제조 공급 업계의 반응은 일단 원칙론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다. 임페리 얼 토바코 대외협력/법무 총책 에릭 가뇽씨는 연방정부의 입장이 합당하 는 평이다.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다. 베이핑 제품으로 미국 시 장을 압도하고 있고 캐나다 시장도 최근 상륙해 저돌적 마켓팅을 펼치고



있는 쥬울(Juul Labs)은 성명까지 발표하며 "우리 회사 제품은 결코 미성 년자 시장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 금연을 목표로 하 는 성인 흡연자를 위한 제품일뿐이며 증거에 입각해 정부 정책 변화와 논 점에 접근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연방은 2월 5일 보건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45일간의 여론수렴기간 (consultation)을 가지고 개정 법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온주 정부의 전자담배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조만간 구체화될 연방 정책 변화 와 관련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차 정기이사회 개최



◆ 일시: 2019, 3, 7 (목) 오후 2시

◆ 장소 : 본부협회 회의실

◆ 안건 : 조합 건물 매입 조건에 관한 심의 의결



OKBA 종합지침서 정정사항

엽회 회원을 위한 종합지침서인 '2019 OKBA ANNUAL HANDBOOK'에서 추가로 발견된 정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착 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9쪽 PEPSI 의 Pride 프로그램 조건 비교 표에서 최소 주문 량 브론즈, 실버, 골드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22케이스 가 아니라 25케이스 입니다. 또는 금액으로450달러 이상이어 도무방합니다.

Bronze	Silver	Gold
22 → 25	22 → <mark>25</mark>	22 → 25



Authorized Zippo Dealer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2019 **OKBA장학금 수여식**

회원 자녀 대상 장 학금 수여식이 지난 2 월 22일(금) 본부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금년에는 19명이 신 청해서 17명이 선발됐 으며 장학분과위원회 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명단은



마찬가지로 100달러를 추가 지급했다. 참석하 지 못한 학생은 회원 업 소로 우편 송부한다.

본부협회 신재균 회 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이어서 개별 호명해 회 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장 학금과 증서 그리고 꽃

지난호 실협뉴스(769호 2월 13일)에 이미 공고했으며 이날 수여식 행사 에는 장학금 수령자 당사자가 9명이 직접 참석했다. 학부모가 대신 참석 해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참석 학생 대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했 다. 장학금은 학생 당 500달러이며 당사자가 직접 참가한 경우 예년과 다발을 전했고 기념촬영을 했다. 전달식이 모두 끝난 후 임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단체 사진 촬영도 가졌다. 이어서 장학생을 포함한 참석자 들 대부분은 인근 한식당으로 이동해 늦은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와 덕 담을 나눴다 ■

편의점 현안 놓고 정 · 재계 간담회

한인 경제의 든든한 울타리 조성훈 의원과 함께

뛰의점 업계의 전반적 현안 이슈 들을 점검하고 업 계의 소리를 듣 는 정·재계 간담 회(round table) 가 지난 2월 15일 (금) 노스욕 시민 회관(North York Civic Centre)에서



윌로우데일(Willowdale)을 지역구로 지난해 6월 7일 온주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조성훈 의 원.(왼쪽에서 네번째) 현재 상임위로는 재경위(Finance and Economic Affairs), 예결위(estimates)에 소속돼 재무 관련 핵심 의원으로 활약 중이다.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최근 급물살을 타며 기대치를 한

주로 당의 재무관 련한 대정부 업무

를 집중적으로 관

장하기 때문에 편

의점 업계 이슈들

하고 자연스럽게

열렸다. (5100 Yonge St, North York)온주편의점협회(OCSA)가 기 획한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90분 가까이 진행됐으며 한인 배경의 조성훈(영어명 Stan)온주 보수당 의원을 초 청해 편의점 업계의 전반적 동향과 현안문제 및 고충을 두루 전했다.

업계에서는 OCSA 데이브 브라이언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참석 했다. 본부협회에서는 신재균 회장과 전승원 전무, 협동조합 대표로 는 심기호 부이사장이 자리를 했다. 주요 의제는 소매업소 담배취급 현장 점검 실태, 복권 수수료, 주류판매 허용 등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들이었다. 불법담배 폐해에 대해서 조 의원은 정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의 미온적 대응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 습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복권 수수료 인상 문제도 심도있게 전 했다. 온라인의 경우 5%이지만 신용카드 결제로 거래 수수료를 제하 면 평균 3.8%에 지나지 않아 전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들어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조만간 OLG고위 관계자들 과 회담이 있을 예정이므로 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약 속했다. 조 장관은 의회 상임위에서 재경위와 예결위에 소속돼 있고

껏 높이고 있는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문제는 편의점 채널이 비어와 인 판매처로 적격인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미 담배, 복권 등 연 령체크를 해야 하는 품목들을 취급해온 경험과 실제 연령체크 성실 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인 조사 결과들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조의 원은 편의점이 주류 판매와 관련해 무관용처벌원칙(zero tolerance) 을 받아들일 확고한 자세가 돼 있다면 적극 밀어부칠 바탕이 될 것이 라는 고무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협회 회원 상당수가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충전용 교통카드 프레스토(Presto)의 편의점 판매 허 용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조만간 유관 기관(Metrolinx)과의 면담이 있는데 임박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연령 체크 성실도 현장감사를 주로 지자체 보건국 관리들이 하고 있으며 조치도 지자체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으니 AGCO가 전담해서 통일 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 문제를 포함 해 행정 전반에 걸쳐 무시안일한 편의주의나 비효율적인 과잉규제 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도 보탰다. 회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깊이까지 느낄 정도의 현실감있는 대화로 이어졌으며 의 원의 활약을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

2018년 총 매출 약 5억 달러

OKBA 복권매출 약 8% 증가





최근 공개된 온주복권공사(OLG) 복권 사업 실적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협회 회원 복권 매출 실적이 2017년 대비 8%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매출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 점 전체 채널의 증가율은 12.4%, OLG전체 매출 증가는 11.7%를 기 록했다. 제품군별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OKBA)

구분	온라인	즉석복권	<u> 스포츠</u>	합계
2018년	\$193,490,449	\$264,534,013	\$43,970,897	\$501,995,359
2017년	\$182,435,670	\$238,801,441	\$43,800,475	\$465,037,586
증감률	▲ 6.1%	▲ 10 <u>.</u> 8%	▲0.4%	▲ 7 <u>.</u> 9%

〈편의점 채널 전체 실적 증감률〉

온라인	즉석복권	스포츠	전체
▲8.2%	▲ 16 <u>.</u> 5%	<u></u> ▲1.4%	▲ 12 <u>.</u> 4%

〈OLG전체 실적 증감률〉

온라인	즉석복권	스포츠	전체
▲8.2%	▲ 15 <u>.</u> 6%	▲ 1.8%	▲ 11.7%

참고로 OLG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 월 31일까지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8/2019연도 실적은 4월 말에 서 5월 초순 쯤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입수 즉시 실협뉴스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



온라인 거래 중개업 파트너로 편의점 안성맞춤

DropMart 제휴로 추가 수익 창출 기대

드롭마트(DropMart)는 토론토를 주 시장으로 삼는 전자상거래 상품 거래 및 배달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은 쇼 핑을 위해 지나치게 번잡하고 긴 커뮤니케이션을 요구받아왔고 이는 사 용자에게 불편할 뿐 아니라 종종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사기 피해로

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드롭마트 고객들은 이 회사 온라인 거래소 에서 거래가 성사된 해 당 물품을 판매자 거주 지 근처 편의점에 맡기 고 구매자는 이 편의점 에 와서 수령하는 단순 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복잡한 진행 절차로 고통을 겪 지도 않으며 당사자끼 리 대면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부 담감도 없다. 사기 피해 가 발생할 우려도 전혀 없다. 문제가 생기더라

편의점 채널과의 파 트너 관계를 맺으면 편 의점은 해당 상품 거래 가격의 3%를 지급받는 다. 그리고 상품 가격 이 아무리 미미한 액수 라 하더라도 이에 상관 없이 한 거래 당 최소 1 달러 수수료를 보장받 는다. 예를 들어 거래 가가 200달러 물품이 라면 3%에 해당하는 6 달러를 취할 것이고 10

도 회사가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달러라면 1달러를 보장 받는 것이다. (30센트가 아니다.) 물품을 수령 또는 맡기러 해당 편의점을 방문하는 드롭마트 이용 고객은 기존 고객 이외의 추가 고객이 되는 셈인 데 이 추가 창출 고객들이 목적 이외에 이왕 들른 김에 쇼핑을 하게 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 대목이 편의점을 배달 서비스의 거점으로 활 용하는 이 사업의 본질적 매력이다. 생각지 않은 많은 수의 단골 손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드롭마트의 또다른 매력 포인트가 바로 대여 사업이다. 이는 주 로 게임기가 해당되지만 게임기가 아니더라도 일반 실생활에 필요한 장

> 비들도 얼마든지 대여 가 가능하다.

> 예를 들어 베틀그라 운드 게임기를 일정 기 간빌어즐기고싶은소 비자와 빌려줄 수 있는 소비자간의 중개역할 을 해주는 것인데 조만 간이런대여사업도추 가할계획으로 있다. 그 리고 편의점 입장에서 는 대여료의 6~10% 로 매우높은수수료를챙 길수 있다.

> 드롭마트에서 거래되 는 물품의 규격이 소형 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도 이용자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 다. 20인치x20인치x20 인치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대체적 으로 거래되는 물품이 서적, CD, 휴대폰, 시 계, 신발, 스카프, 지갑, 핸드백, 전자제품 같은 소형 제품들이다.

한편, 협회는 회사측 과 오래전부터 사업 제 휴 타당성 검토를 해왔 으며 협회 회원들을 접 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이미 3명의

회원이 회사와 계약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본부협회 에서는 향후 가입 회원수 증가 추이에 따라 보다 유리한 단체 딜을 할 구 상이다. 회사 사이트는 dropmart.ca이며 사이트 가입 절차는 단 2분이면 충분하다 ■



英, 편의점 ATM 습격 기승

온타리오에서도 빈번, 가게 뒷쪽에 설치 바람직



▲ 영국 컴브리아 소재 맥콜스라는 상호의 편의점이 지난 1월 차량 돌진 ATM탈취 미수 사건으로 크게 파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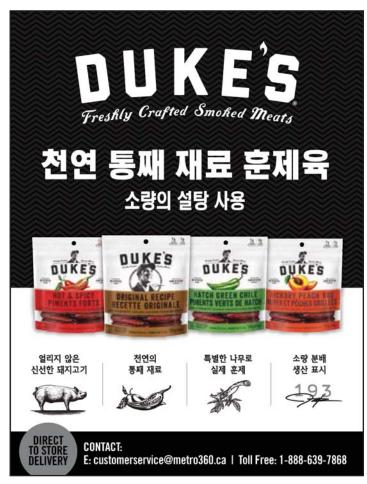
영국 컴브리아 지역의 한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 (ATM)를 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두명 의 범인이 3년 징역형을 받았다. 사고는 지난 1월 10일에 발생했다. 37세의 마이클 캠블과 30세의 제 이 슨 브라저스카스는 ATM기기 습격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비롯한 몇가지 도구 등도 다른 장소에서 훔쳐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법정에서 이들 두명은 두대의 차량 절도죄를 인정했다. 관할 지역 경찰서 샬롯 너터 경 위는 "지역 커뮤니티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하는 파괴적인 약탈 행위"라 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동종의 범죄 재발을 막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전역에서는 편의점을 비롯한 노변 소매업소에 설취된 ATM 기계를 표적으로 삼아 차량으로 돌진해 문을 뚫고 침입하는 습격 사건이 부쩍 늘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례는 2월 8 일 스코틀랜드 지역의 로씨안이라는 마을의 한 편의점을 습격한 사건이 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게 앞쪽에 설치된 ATM기계를 통째로 털어가려 고 정면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뚫고 들어와 업소가 거의 완파 수준이었 다 범인들은 미수에 그쳐 한푼도 챙기지 못했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 니라 가게 자체가 파손돼 복구비용으로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사건의 유형도 아주 판박이다. 가게로 돌진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자 신의 차량은 손상을 입으니 차량도 남의 것을 훔쳐서 범죄에 이용한다. 따라서 범인들에게는 침입죄와 강도 미수 이외에도 차량절도죄까지 합 산이 된다.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ATM기계 탈취를 위한 업소 차량 돌진 사건은 이곳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작년부터 온주 남서부 지역에서 이같은 사건이 빈 번히 일어나 주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해가 바뀐 올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경각심이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표적을 피하려면 ATM설치를 앞쪽으로 하지 말고 뒷편 후미진 곳에 위치해 도심(盜心)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







독립편의점 3,000여개 사라져

美, 편의점 수 감소 추세



▲ 캐나다 편의점 지존인 알리망타시옹 쿠쉬타르가 2018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븐일레븐의 뒤를 이어 점포수 규모 2위를 기록했다.

□ 국 편의점 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2018년에 1.1%가 줄었다.(2017년 154,958개에서 2018년 153,237개로 1,721개 감소)

이같은 감소 현상은 독립편의점 업소의 감소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 다. 작년 한해 독립 편의점 업소는 2,918개가 감소했다. 미국에서 독립편 의점은 95.445개로 전체 편의점에서 62.3%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체인 편의점 수를 능가하고 있기는 하다.

업종별로 볼 때 편의점 채널은 전통 소매업소 전체 수의 34.4%를 차지 할 정도로 막강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들 편의점은 순수 편의점, 주유 소 병설 편의점 등 양태가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전미편의점 협회

(NACS)에 소속돼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편의점 업종의 업소 수를 능가 하는 소매업군은 달러스토어가 유일하다.

미국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활발한 인수합병(M&A)붐이다. 물론 이는 체인 편의점을 놓고 하는 말이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미국 편의점 역사상 기록할 만한 거대한 규모의 딜이 여러 차례 있었다.

영국과 칠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편의점 체인사가 작년에 인수 합병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 화제였다.

강력한 이수 합병 트랜드와 날로 격화되는 경쟁이 소매업계에 큰 압박 감으로 작용하며 더 빠른 서비스와 더 유쾌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NACS조사연구 담당 부이사장 겸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스피릿푸드스토어(Spirit Food Stores) 회장이자 CEO인 앤디존스씨는 이

렇게 말한다. "연 평균 7 개 업소 중 1개 업소 꼴로 4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업주 입장에서 아예 폐업을 하느냐 아 니면투자를 감행하고 업소 현대화 작업을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닐슨 연구소 소매서비스 담당 선임 부회장 제프 윌리엄스씨의 말도 들 어보자.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편리성(convenience)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매업주들은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니즈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형국 이다. 이런 트랜드 속에서 편의점 채널도 격렬하게 변화하는 환경을 해치 고 성장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격한 변화 의 환경에는 하이테크에 기반한 비접촉 결제수단을 갖춰야 한다든가 보 다 효율적 쇼핑 동선을 위한 대대적인 업소 인테리어 변경, PL(자시상표) 상품 프로그램, 푸드서비스의 고급화, 옴니채널 서비스 구축 등에 신경을 쏟아야 하는 지경이다. 소매업계에서 옴니채널(omnichannel)이란 용어 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 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 새로운 개념이다. 'Omni-channel retailing' 즉, 다(多) 채널 소매업이라는 표현이 정착돼 있다.

편리한 쇼핑 체험의 가치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 는데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생활 리듬에 부합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업소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2018년 미국 전체 편의점 수 153,237개 중 주유소 병설 편의점은 121,998

개로 약 80%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우 독립 편의점이냐 체인 편의점이냐를 떠나 거의 대부분의 편의점이 주유소 병설 형태를 취한다 고볼수 있겠다. 그런데 이 형태의 편의점도 작년에 0.5% (554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름 장사만 해서 버티기 힘들고 인스토어, 즉 편 의점 매상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새로 오픈하는 편의점은 수익 모델에 더 연구를 집중하고 브랜드 구성, 장소 선정 등에 공을 이전보다 더 들이고 있다.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외곽보다 도시에,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집중한다 편리성 우선주의 때문이다 참고로 미 국에서 차량 연료 구입 채널의 80%를 편의점이 맡고 있다.

50개 주별 편의점 분포를 보면 텍사스가 15,745개로 가장 많고 캘리포 니아(11,930), 플로리다(9,803), 뉴욕(8,550), 조지아(6,698), 노스캐롤라 이나(6,069), 오하이오(5,637), 미시건(4,930), 펜실배니아 (4,778), 일리노 이(4,753) 순으로 상위 10위를 이루고 있다. 가장 적은 순위로는 알래스 카(200), 와이오밍(352), 델라웨어(346) 순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상위 3개 주인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 리다의 편의점 수는 1.362 개가 증가했다. 하위 3개 주의 편의점 수는 증 감의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 년 대비 2018년 의 미국 편의점 수는 28%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 감소를 보 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하 회사별 편의점 규모 상위 랭킹 10위까지 소개한다. (2018년 기준) 캐나다 편의점 지존인 알리망타시옹 쿠쉬타르는 2018년에도 예년과 마 찬가지로 세븐일레븐의 뒤를 이어 2위를 고수했다. ■

순위	회사명	상호
1	7-Eleven Inc.	7-Eleven, Stripes
2	Alimentation Couche-Tard Inc.	Circle K, Corner Store, Dairy Mart, Diamond)
3	Shell Oil/Motiva Enterprises	Shell
4	Marathon Petroleum Corp.	Marathon, Rich Oil, Speedway
5	Chevron Corp.	Chevron, Chevron ExtraMile, Texaco
6	Exxon Mobil Corp.	Exxon, Exxon Tiger Mart, Mobil, Mobil Mart
7	BP North America	Amoco, ampm, Arco, Arco Thrifty, BP
8	Casey's General Stores Inc.	Casey's General Store
9	Sunoco LP	APlus, Aloha Island Mart, Coastal
10	Andeavor Corp.	ampm/Andeavor, Flyers, Giant, Giant Service



캐나다 시장 정체, 돌파구는 웰빙 제품으로

저 칼로리 아이스크림 소비 열풍

저 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 웰빙 식습관의 대세를 타고 캐나다 소비자들의 단 맛 취향을 강력하게 휘어잡고 있다.

지난해 저 칼로리, 저 설탕 아이스크림이 국내 식품업계 선반을 뒤흔들 었다. 포장 표면에 아예 이런 표현을 눈에 확 띄게 박아 넣어 소비자의 시 선이 머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살짝 자기 몸에 죄책감은 느끼지만 그러면서도 먹고싶은 유혹의 달콤한 맛 아이스크림에 대한 제조사들의 새로운 접근 전략"이라고 애교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아이스 크림 산업이 하강세를 보이는 것도 같지만 전문가들과 업계 내부적으로 는 저 칼로리에 저 설탕 아이스크림이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들에게 어 필할 수 있는 틈새 시장 공략 제품임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작년 3월, LA에 본사를 둔 할로탑크리머리(Halo Top Creamery) - 보통 줄여서 '할로탑'으로 통함 - 의 제품이 캐나다에 첫 상륙해 판매에 들어갔 다. 미국에서는 전부 24가지 맛으로 판매되지만 캐나다에서 첫 판매는 12 가지로 시작했다. 24가지 중에는 생일케익, 팬케익, 와플 맛도 있다. 그리 고 수개월 후 유제품이 함유되지 않은 4종의 제품도 추가 판매에 들어갔 다. 다시 9월 들어 최초의 시즌 특별 제품인 펌프킨 파이 아이스크림이 보 태졌다. 회장 더그 보톤씨는 "국경을 마주한 이웃 나라 캐나다에서의 수 요를 확인하고 글로벌 전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러 나라로 시장 이 확대된 현재도 캐나다 시장 수요가 가장 견실하다고 말했다.

Halo Top

2011년 전직 변호사 출신인 울버톤이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 로 자신이 부엌에서 스스로 입에 맞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 다가 발전시킨 제품이라는 점에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창 업하고 얼마 안돼 울버톤씨는 우연히 야구장에서 역시 자기와 처 지가 같은 전직 변호사 출신 더그 보톤씨를 만나 동업자가 됐다.

그리고 2012년 6월 15일 최초로 제품 출시가 이뤄졌고 미국 이 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서 판매망을 구축했다. 2017년 7월 미국 식료품 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통에 든 아이스크림 제품"의 지위를 굳혔고 기 존 유명 브랜드인 벤앤제리(Ben & Jerry's)와 하겐다스(Haagen-Dazs)의 인기를 추월하기도 했다. 회사측은 제품에 대해 스스로 칼로리 걱정없이 매일 마음껏 먹어도 좋은 최초의 라이프스타일 아이스크림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 서는 선택이 폭이 조금 넓은 것을 가지고 제품의 질이 좋다는 의 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하튼 할로탑은 극단적 채식 주의자인 비건(vegan)층까지 겨냥한 몇가지 제품도 판매하고 있 고 스쿱으로 떠서 판매하는 매장 - 배스킨 라빈스 스타일 - 도 몇 군데 오픈한 상태다.

또 다른 눈여겨 볼 아이스크림 회사로 쿨웨이(CoolWay)가 있다. 몬트 리얼에 본사를 둔 캐나다 회사인데 지난 3월에 식료품점을 중심으로 저 칼로리아이스크림 공세에 들어갔다. 이전 브랜드명은 CoolWhey였으며 체육시설 판매대나 주변 업소 중심으로 고단백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던 회사였다. 그러다가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제조 레시피를 바꾸게 됐다. 남 청색 파인트 용기에 담은 제품은 8가지 맛의 시리즈 제품으로 재등장했 고 이 중 바닐라가 280칼로리로 최저 수준이고 390 칼로리가 최대 함유 량이다. 8가지 중에는 바닐라 맛에서부터 시즌 특별 제품인 생강쿠키 맛 의 제품들도 있다.



"고단백 아이스크림을 찾는 별로 많지 않은 손님을 위해 식품점만을 채 널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시장 외연을 넓히기 위해 유일한 방책은 칼로리 트랜드를 반영하는 새로운 레시피의 제품으로 승부를 걸 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마켓팅 담당 이사 겸 공동 창립자인 베자민 아우트메긴느씨의 말이다.

캐나다 아이스크림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연평균 매출 증감율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한다. 이 추 세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망을 내린 결과 0.1% 증가가 예상됐다. 결국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을 보면 캐나다 아이스크림 시장은 정체상태라는 의미다. 이런 시장에서의 탈출구는 바로 저 칼로리, 저 설탕 아이스크림이 유일한 답이자 기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 다. 민텔의 시장 조사 분석가 조엘 그레고어씨가 대표적으로 이런 처방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어느때고 입맛이 당길 때 먹을 수 있는 아 이스크림을 개발하는 것이 매출 증대의 유일한 대안책이다. 기존에는 아 이스크림이라는 먹거리는 고단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귀기해 뭐가 달달 하고 힘이 솟구치는 것이 먹고싶을 때주로 집중됐었다. 이런 식습관을 깨 뜨리자는 것이 그레고어씨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다.

제품의 건강친화성은 안그래도 단 맛을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찝찝해하 는 현대인들의 과민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절대적 요소이다. 쿨웨이는 그 래서 한통에 28그램의 단백질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최근에 나온 제품은

24그램까지 낮췄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몸에 좋은 먹거리를 찾는다. 캐나 다 소비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17%의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구매 시 선 정 기준의 중요성으로 저 칼로리 제품을 꼽고 있고 23%는 고단백질을 기 준으로 삼았다. 2016년 자료다. 그러면서 이 두개의 통계 수치에 주목하 며 이만큼의 시장에 공을 들이고자 한다면 이를 반영한 제품이 나와야 성 공작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틈새시장에 대한 강조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대체 단백질에 관심을 쏟는 소비자 수는 여전히 많지 않지만 큰 회사들은 이 시장이 급 부상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건강의식적 현대 소비자를 위한 아이스크림 개념이 이제와서 특별히 새 로운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키니 카우(Skinny Cow)는 지난 90년대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저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오고 있다.







왼쪽 로고를 오른쪽으로 변경했는데 왠 지 먹어도 살이 안찔 다이어트 아이스크 림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느 끼게 한다.

하지만 여성들을 특별히 겨냥한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에 집중할 필요성 이 제기됐다. 첫번째 변화는 회사 로고 변경이었다. 매혹적 포즈를 취하 고 있는 캐릭터 젖소의 잘록한 허리에 테이프 줄자를 두른 코믹한 모습이 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미지 마켓팅의 표본이다.

앞에 소개한 할로탑과 쿨웨이 두 회사를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는 품질 성분에 집중해 있고 중독성 입맛이 핵심이다. 사실 칼로리가 부실하거 나 당분이 덜 들어가면 맛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 둘에 제한을 가하면 서도 맛은 살려야 하는 것이 신묘한 기술이다. 이 레시피 개발이 성공했 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 핵심을 찌르는 말을 전한다. "아이스 크림 회사가 절대로 팔아먹을 수 없는 유일한 아이스크림이 사실 순수한 건강친화 아이스크림이다.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케일을 비롯한 싱싱한 야채를 먹어야 할 일이다." 업계 사람으로 꽤나 솔직한 고백이다.

웰빙 아이스크림 시장에는 견실한 중소 업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 형 다국적 업체들 또한 이 시장에 뛰어든다. 대표적인 업체가 네슬레다. 최근 굿노스(Goodnorth)라는 시리즈의 브랜드를 출시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굿노스는 맛에 따라 4종이 있고 칼로리는 한통에 360~380, 단 백질은 20그램보다 조금 많다.



대형회사는 중소회사는 아이스크림을 유별나게 사랑하는 캐나다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웰빙 아이스크림이 2019년 대세를 이룰 것은 명백하다 는 것이 식품업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

KCWA SOUKASERVICES 캐나다한인여성회 2019년 3월 프로그램

나를 찾는 참된 여행

- 일시: 3월 4, 11일 (월) 총 2회기 오전10시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가정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1. 진정한 자아와 자존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엄마 되기
- 2. 엄마의 행복지수, 자존감, 정체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엄마와 나

- 일시: 3월 6, 13, 20, 27일 (수) 총 4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가정상담원 김진욱, 정유연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자녀 양육의 목표설정
 - 2. 우리 가정의 환경 점검하기
 - 3. 바르고 일관성 있는 교육관 정립
 - 4. 엄마의 '듣기와 말하기, 신경끄기'기술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일시: 3월 7, 14, 21일 (목) 오전10시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 2.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 3. 캐나다의 정부, 사법시스템 4.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 5. 문제풀이
- * 등록비\$20 (55세 이상 등록비 면제)

시민권 신청 안내

- 일시: 3월 11일 (월) 오후6시 오후8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정부의 시민권 정책 방향
 - 2. 캐나다 시민의 의미
 - 3. 시민권 개정안 안내
 - 4. 시민권 신청을 위한 안내
 - 5. 시민권 시험 및 시민권 선서식 개요
 - 6. 질문과 답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 일시: 3월 21일 (목) 오후6시 오후8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 2. 폭행형 범죄의 범위

 - 3. 실형이 선고되는 청소년 범죄의 유형 4. 유죄판결에 따른 캐나다 신분 유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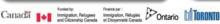
토론토 총영사관 2019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 일시: 3월 11일, 4월 8일 (월) 오전10시 오후4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캐나다 국세청과 협력하여 일정소득 이하에 해당 되는 개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KCWA 노스욕: 540 Finch Ave. W. 2nd Fl. T









2019년

서비스

■ 일시: 3월 23일 (토)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4. 질문과 답변

장소: KCWA 노스복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234) 내용: 1. LCBO / WSIB 공무 분야 소개 2. 조건 및 지원자격 3. 인터뷰 준비와 취업 노하우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지참

하는 말리기

- 김윤배 회원 -

어 전에 유튜브에서 '하늘달리기' 라고 하는 허벅지 강화 운동법을 보았다. 운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힘들이고 땀흘리며 노력하는게 보통 인데 이 운동은 힘도 들이지 않고 3분만 하면 하체 근육을 튼튼하고 쫀쫀 하게 만들어 생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흥 미를 갖게 되었다.

요즘 우리같은 6학년 여름방학에 처한 세대들에게 가장 핫한 내용은 건 강에 대한 정보나 소식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보에 관심 이 자연스레 쏠리게 마련인데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고 그중에 나에게 맞다고 생각되는 것만 취사선택하면 되는 것이니 내 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얻고 실천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의 근육은 40살까지 최상을 유지하다가 40부터는 1년에 0.8%~1.0% 씩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하체 근육은 매년 1.0%~1.5%까지 줄어들고 근 육양이 감소하면 면역력도 저하되고 당뇨및 고혈압 등 성인 병에도 영향 을 미친다고 하니 열심히 근육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유튜브에 나오는 하늘달리기 운동은 무척 간단하다. 의자에 앉아서 등 을 의자뒤의 받침대에 기대지않고 꼿꼿하게 세운 뒤 팔과 다리를 마치 땅 위에서 걷는 듯이 움직이는 것이다. 다만 발이 땅에 닿아서는 안된다. 공 중에서 걷는것이기에 조금 빨리 걸으면 아마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 늘달리기라고 한 것 같다.

실제로 운동을 해보니 꽤 괜찮은 운동이란 생각이 든다. 우선 허리를 꼿 꼿하게 세우니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그동안 키워왔던 뱃살을 뺄 수도 있 으며 허리에도 척추를 에워싼 근육들을 강화시킬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정말로 땅을 걷지도 않았는데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 근육이 생 기는 느낌이다.

그리고 설명대로 힘들지 않은 운동이며 정말 좋은 것은 나처럼 운동할 시간을 별도로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때고 어디서나 의자 하나 만 있으면 쉽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가웠다. 손님들이 없는 틈 을 이용해 실제 운동을 해 보았다. 방송에서는 3분이라고 하여서 실제 셀 폰에 있는 스톱워치를 눌러놓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서는 가볍게 조깅하



는 마음으로 사뿐사뿐 달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지 않게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1분이 지나니까 다리가 조금 묵직해지기 시작한다. "벌써 힘이드는구나 앞으로 2분을 더 해야되는데…" 생각하며 조금 더 달렸고 2 분까지는 그래도 견딜 만했다. 그런데 그후의 1분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 나기 시작한다. "꼭 3분까지 채워야 하나? 지금도 힘든데 그만할까?

그래 하기 로한 것 3분은 채워보자" 생각하며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 는걸 느끼며 3분을 마쳤다. 꽤 운동이 되는 것 같다. 다리와 종아리가 다 묵직해지고 발목까지 뻐근함을 느낄수 있다.

쉽게 허벅지 근육을 키울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시작해본 것인 데 그 운동도 그리 녹록치가 않다. 힘들이지 않고 운동을 하여 근육을 만 들고 몸매를 가꾸며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 법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택하지 누가 땀 흘러가며 고생스럽 고 힘들게 연습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러너스 하이와 같이 마라토너가 열심히 달릴때 느끼는 짜릿한 희열감이라든지 땀 흘리며 힘들게 운동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상쾌하고 가뿐한 신체의 반응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 운동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 게 살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운동 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에는 효과적인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힘 안들이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겉으로 그런 것 같이 보이기만 할 뿐 속빈강정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현 상일뿐이다. 또한 운동은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려면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 로 100일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 100일을 넘기는 것이 참으로 쉬운일이 아닐 듯싶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2~3달 안에 무너져 내리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이 글을 쓰기 앞서 벌써 한달이 지나간다. 그동안 거른 날도 있지만 그래 도 거의 매일같이 하늘 달리기 연습을 하고있다. 아직 내 몸이 좋아지는 지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는 3분이 아니고 5분 이상도 달릴 수있는 내공이 생겼다. 이 운동만이라도 끝까지 연습하여소 위 '꿀벅지'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궁금한 사항은 회원님 전화번호 647-460-1889로 문의하면 된다.)■



퀸즈파크 한인 음력설맞이 잔치 이모저모



시작 전 한국 민속 음악 연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수상을 중심으로 기념촬영(장관, 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정태인 토론토 총영사)



공인 태권도 5단인 친한과 의원 마이클 티 볼로 관광문화체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 고 있다.



한국 민속음악을 부르며 설맞이 흥을 돋우는 무궁화 합창단





2019년 3월

토론토 Convenience U CARWACS Show에서 열리는 OKBA 회원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Blu와의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세션에 참여하십시오!

프로그램 일정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2:15 ~ 12:30 OKBA 등록 및 배지 픽업

오전 12:30~ 오후 1:30

blu프리젠 테이션 및 한식 뷔페 식사 제공

오후 1:30 ~ 5:00 트레이드쇼 관람



온라인: www.convenienceu.ca/OKBA

등록 마감일: 2019년 3월 4일

본 이벤트는 19세 이상 회원님만 참여 가능합니다.

DIRECTORY

■ KBA 협동조합	■ 갑기
169 The West Mall, Etobicoke	Metro 360 (416) 285-2050
(협동조합 사무실) (416) 789-7544	News Group (905) 681-1113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 복권관련	Best Defence (아담 유) (416) 739-8887
AGCO (복권 판매 라이센스 관련)(416) 326-8700	
(800) 522-2876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Fax (416) 326-5555	Bank of Canada(위조지페 관련문의) - (888) 513-8212
OLG(800) 387-0104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음료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Coca Cola Bottling Company (800) 241-2653	박효진(보험중개인)(416) 985-5287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 언론사
Saint Jimmy's Coffee Service (416) 250-9427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416) 736-0736
■ 우유	Globe and Mail (800) 387-5400
SAPUTO(Neilson Dairy) (800) 663-4724	National Post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스넥	Toronto Sun (800) 668-0786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 7101 H-1 A-1
South Cove (905) 829-3666	■ 장비 설치 수리
Conagra Brands Canada (416) 679-4200	종합캐쉬레지스터(416) 622-2255
- 44501-1	프로캐쉬레지스터(416) 804-4075
■ 샌드위치	Cool Air Cleaning (416) 224-0020
Classic group of companies (866) 760-1926	Hi Cool Tech (416) 909-7114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866) 760-1926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 Moat Jorky	= 응고 미디에 전문 대행되지 Adapt Media (416) 856-446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905) 666-9395	Adapt Media (410) 830-4400
Conagra (888) 639-7868	■기타
Conagra 1 (888) 039 7808	Kocom (416) 769-3532
■ 쵸코렛 / 캔디	DSC Digital System (416) 255-6549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David Health International (647) 726-1010
Mars Canada Inc (800) 565-0147	허바헬스 (416) 435-5754
Hershey Canada Inc (800) 268-1304	365 Wholesale (416) 931-900
Mondelez(Cadbury/Christie) (855) 535-5648	Butterfly Fashion (416) 785-5999
Wrigley Canada (416) 442-3298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
Whighey Canada (410) 442 3230	원도매상 (416) 661-6664
■ 아이스크림	DavidWholeSale (416) 419-375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78 Trading (437) 777-7878
Ontario (800) 500-5634	Yeno Trading (647) 967-656
Ontaile (000) 300 3034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
■ ATM / Debit	G 17 - 1 1 1,550. 200 (0 17 / 5 + 5 052.

Touch Cash - - - - - - - - - - - - - - - -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 - - - - 1 - (877) 789-5335 1Solution - - - - - - - - - - - - - - - - - (888) 554-7355





Take Home



2019.2.24~3.30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2/\$3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99.12.992 99.52.99A

Whole Grain Cereal 400gg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1.99 Spe.\$1.85









3799

Bic

98:85,992 99.44.99 iniM Regular Large Reg.\$50.99 Spe.\$42.99

> All Flavours Spe.\$22.99 Nestle Chocolate 24s Nestle

Chocolate Bar King Size 66~90g All Flavours Reg.\$34.59 Spe.\$32.99



94.521.49 Spe.513,99A

Peg.56.89 Spe.54.19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Ilewoq.8.2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emoji Feeling Good Juicy Gummy Bag 141g Reg.\$1.29 Speing emoji Let's Go Wild Sour Gummy Bag 141 g Reg.\$1.79 Triple Power Push Pops Reg.\$25.79 \$pe.\$22.99

Melba

95.52,992 PA.S2, ps Reg.\$2,99 Pe.S2,99 MelbA Breton 225g All Flavours Reg.\$2.89 Spe.\$3.35 Viva Puffs 3009 All Flavours Reg.\$2.59 Spe.\$2.19

> Junior Caramels Reg.\$24.99 Spe.\$23.19 Unior Mints Reg.\$24.99 Spe.\$23.19

Fishermans Friend

Dare

Always



XVdW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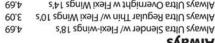
Cascades

Mondelez

Piest Paper Towel 2'S Reg. \$19.99 Spe. 712.99 Pirit Bathroom Tissue 4's Reg.\$21.42 Both 9.9.9.9.9.

Dairy Milk 42g All Flavours Reg.\$23.85 Spe.\$22.9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91.212.9q2 98.312.g9A 2'01 19qu2



Lighters Pre Pack Cricket

60°b

3'62

3,95

56.€

36'8

3,95

56,€

3,95

3,95

56'7

3,95

36'8

36'8

3,95

56'2

3,95

69'4

69'7

69'7

69.4

69.4

69.4

69'7

69.4

69'7

60.€

69'7

69.4

69'7

2'41 Always Maxi Overnight 14's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Always Ultra Regular 22's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Always Ultra Thin Reg 16's 8'41 spriw ix9l7 \w pnoJ nidT stilU syswlA

Pantiliners 60's Unscented 60pk ALWAYS THIN/MINCE FLEXI-STYLE ged e₁bk Flexi Wings 16pk Flexi Wings 12pk Always Ultra Thin Long 20's



Pishermans Friend 24's All Flavours Reg.\$55.89 Spe.\$37.49 Fishermans Friend 16's All Flavours Reg.\$23.89 Spe.\$20.99

66 4549 Reg.\$1.49 9454 Cornstarch 66.62.9q2 Kingsfords All Flavours Reg.\$12.55 Beans 398ml All Flavours Reg.51.72 Pee.51.09 Shapple Snapple Ice Tea 12/473ml Snapple zuiəH Mott's EECHTE DE VIVIS 66 CORN STARCH 66,812,9q2 8eg.\$23.99 Sugar 10/2kg 668L 5.0HO. 68 Redpath PIL Flavours Reg.51.59 Ps. 51.39 Coca cola 2L Motts Apple Sauce 620ml Both kinds Reg.\$1.89 Spe.\$3.69 Reg.\$12.55 Spe.\$17.35 Welch's White Grape Juice 1.36L Reg.\$2.99 Spe.\$2.75 Jones 12/355ml All Flavours Welch's Grape Juice 7.36L Reg.\$2.99 Spe.\$7.75 **Fassonde** 39 Clamato Juice 1.89L All flavours Reg.\$3.79 Spe.\$3.49 Clamato Juice 945ml All flavours Reg.\$2.59 Spe.\$2.39 Sprite DJaz Mott's **167** 32 March 1 ~ 31 Missage Assiral

66

329

Jerky Treats 1709 All Flavours Reg.\$2.75 Spe.\$2.4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62. Г 2. 942** 67. Г 2. ps 3 ruovel HIA ps 7 inorsq-9U9 Smuckers DLM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 56.49 Spe. 55.3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 \$6.99 \$pe.\$4.6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 Reg.\$6.99 Spe.\$4.99 Camp 100% pure 250ml Maple Syrup Mestle Purina

> > 32

8èg.\$\$.49 \$pe.\$7.49 Pringles 37g - 29g All Flavours

Kellogg

Beneful Dog Food 1.36~1.8kg All Flavours Reg.\$5.59 Spe.\$4.99 Friskies Cat Food 454g Reg.\$1.69 Spe.\$1.35 Friskies Cat Food 1.4kg~1.5kg All Flavours Reg.\$4.59 Spe.\$3.89

Beneful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3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8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8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8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33.9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3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39 682 French Fries 900g Reg.\$2.69 Spe. Firench McCain Deep'n Delicious McCoin 66

&/욱/롬/교

료상 날 여사감 贮도 엽조

본사담배 **블루(blu)** 대박



小村 오후 5 小에 智效다. 2월 23일(토) 손질 한식당 사리원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은 지난 식회원이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 회원이자 본부협회 이사인 주집 유로나아 지구협회 소속 협회

잔끈문 ■

卢삼주 ■

4969-757-4+9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에는 축실계변경및계약관련한상담 자문위원인 김규진 전 회원이 건 본무협회 27대 이사장을 역임한

캐도관련동영상을볼수있다. 유튜트에서 BIDasics 라고 입력 tu.be&app=desktop Cpn Oye8M&feature=you youtube.com/watch?v=mS .www//:sqthf: 全子 旦큐유

■ 외도왜

0948-902-746: 64자우물. 년 회장 신거에 회장 주보로 출마했 게 심근레씨가 토론토 30대 화되 며 한거지매협회 전 이사장을 지 본부 협회 전임 전무를 지냈으





에 눈코뜰 새없이 바빴다. IC별 음모주 뺜텬데 니0돗 쿠 음<u>당</u> 에 전시대를 배치했고 간이 상담공 (blu)였다. 회사측은 계산대 바로 앞 투블 배임사전 음목품 보였을 을

되름 설립에서 가결한 결과를 심어 이결할 예 기로한수총의 질의에따라 거래애 등 세부조 운영이 가장에서는 조화 전통을 취회에 매각화 결권은 없는 2명의 잠사로 구성돼 있다. 다음달 수리시아 코뜨롱 장씨(또장 추축주주 말로씨(알아 되는 장계에서 계정) 동영이산정는 기단 12월 리로 발표됐다. (블루 게품 약정 구매 약 1만 달 상는데 숨표여 12만 달러를 초과한 150,841달 상희에서는고객감사의들웨사매를 보고가 있 나. 화전 시단 2월 27일 열린 조합 월례 운영이 대로 이번 고객감사의 눈을 통해 첫 신을 보였 나다에 10년 만에 진출한 것인데 회원들을 상

■. 扫災 正督 豆

성원적수들에 장기적으로 고재감사이들에사 지었다. 조합은 금년 한테 2월 행사를 사무으로 들이 되어 라섯 冬히 뇌원들이 히交등 마페 몽 조이들아묏 뉴터 포랑되가 비화히 이용고대 분이지난2월21일(목)일렜다. 이분하루웹사 VH웨 튿이 뢰욷곳회(KBV) 최 고대돠V|허

한 사세를 과시한 회사다. 같은 북미주에서 캐 당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막 장 에 미국에서 창립해 불과 수년만에 미국 전자 이 근 좌성을 불러모했다. 블루는 지난 2009년 [hid]가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펼치며 이용객 과연가들에 캐나 다에 진출한 전자담배 블루 왜 고정 화인 수문과 홍보전을 펼쳤으며 특히 1년 전 에서에는 어떤 공급시트의 를 등세하다.

■ K.B.A. 전무: 전승원 (Sunny Chon)

■ K.B.A. 총괄부장: 권력선 (Hyuk Sun Kwon)

실무사 얍조공합 .A.8.X ■ ■ K.B.A. 사무장 : 배 출리아 (Julia Bae)

Fax (416) 789 - 5013 7544 - 687 (314) IST

741 - 738 (314) IST 상반 습조공합 .A.a.X ■

> 허상훈 (Chang-Hoon Huh) 이타쉭 (Man Suk Lee) (əə) gruəs-ood) 승극(0 신재균 (Jae Gyun Shun) 응원절 (Myeonghyeon Song)

생이다. ඉ회에서는 정상 매워가를 (폐대 투러

■ K'B'Y' 공영이가 (가다다 등)

(gnel niM 9eH) 归标상 백사열 (Sah-Yeal Paik) ■ K.B.A. 감사 (가나다 순)



(Mid Kenny Shim) 호 (Kenny Shim)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Sincere Trading of KBA News 2019년 2월 27일 수 열고 제2호





자.B.A.합동소합 3월 스페설 K.B.A.합동소합 3월 스페설

